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임성학
EAI 시민정치패널
서울시립대

여기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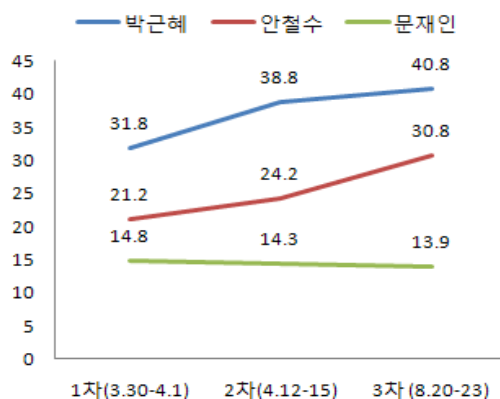
컨벤션 효과? 경선 직후 큰 변화 없어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8월 20일 박근혜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후 실시한 제3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직전에 실시한 1차 조사 시기에 비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 모두 10%P가량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직후와 현재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2%P 상승하는데 그쳐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이 기대보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철수 원장의 경우 별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8%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의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에 실망한 무당파나 후보를 고르지 못한 유권자들이 안원장의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원장 지지로 돌아서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의 지지율 확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 차원으로 정리해본다.

[그림1] 대선 다자구도 지지율 변화(%)



요인1.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의 차이

17대 대선의 경우 ‘경제발전과 선진화’가 시대적 요구였다면 18대 대선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원하는 차기 대통령상에 대한 질문에서 반 정도인 46.4%가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국정운영이 뛰어나 대통령’ 27.2%, ‘사리사욕 없는 도덕적 대통령’이 22.9%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주요 후보 평가에서 박 대표는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소통능력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박 후보가 소통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선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예방으로 잡은 것은 불통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이런 행보가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요인2.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불법자금으로 차떼기 당으로 몰리는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표는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면서 2004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박대표의 발 빠른 쇄신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최근 공천비리 문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입장을 유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부패에 더 이상의 용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천비리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책임여부를 물어본 질문에서 박후보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59.4%로 ‘책임이 없다고 본다’는 응답 34.3%보다 훨씬 많았다.

요인3. 안풍의 견제력 : 여성과 충청 프리미엄 상쇄

안철수 원장의 존재는 박 후보 지지율 확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 여성이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인권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후보라는 점에서 박 후보는 주요 대권후보들에 비해 여성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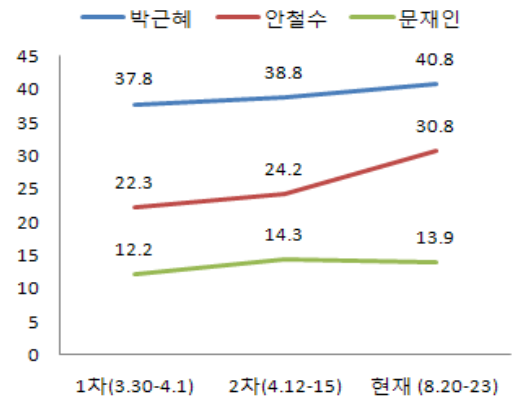
그러나 유독 안원장과는 성별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 문재인 양자 가상대결의 경우 여성의 58.5%가 박근혜, 37.6%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 안철수 대결에서는 여성의 48.8%가 박근혜, 47.0%가 안 원장을 지지했다.

한편, 박 후보가 세종시 원안을 지킨 이후 충청권에서 박후보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출마한 대선후보도 없어 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양자 가상대결시 문재인 후보와의 경우 박 후보에 대한 충청권의 높은 지지는 유지되는 반면 안원장과의 가상대결에는 박 후보의 충청 프리미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3] 2-3차 조사 간 정당 지지율 변화

2차 조사 (4.12-15)		이동 대상	빈도	이동 비율		3차 조사 (8.20-23)
박근혜 681명 [46.9%]	⇒	박근혜	558	81.9%	⇒	박근혜 656명 [45.3%]
	⇒	안철수	98	14.0%		안철수 733명 [50.5%]
	⇒	유보	25	3.7%		유보 61명 [4.2%]
안철수 716명 [49.4%]	⇒	박근혜	73	11.1%	⇒	안철수 733명 [50.5%]
	⇒	안철수	616	86.0%		안철수 733명 [50.5%]
	⇒	유보	27	3.8%		유보 61명 [4.2%]
유보 53명 [3.7%]	⇒	박근혜	25	47.2%	⇒	유보 61명 [4.2%]
	⇒	안철수	19	35.8%		유보 61명 [4.2%]
	⇒	유보	9	16.9%		유보 61명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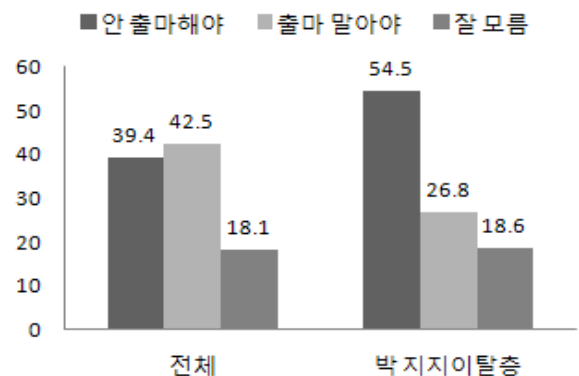
[그림2] 충청 147명 대선 지지율 변화(%)



안철수 원장의 지지이탈 효과도 박 후보의 지지율 확장을 잠식한다. 총선 직후(2차)와 이번 패널조사(3차)를 비교해보면, 총선 직후 박근혜 46.3%, 안철수 49.7%, 기타 등은 3.9%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박근혜 45.3%, 안철수 50.5%, 기타 등 4.2%로 나타나 양자 대결에 안원장이 다소 앞서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총선 직후에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자 중 안 후보 지지로 변경한 경우(98명)와 박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기타 등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한 응답자(25명)의 특성은 살펴보자(<그림3, 4> 참조).

지지변경 혹은 유보층에서 안철수 원장의 출마를 더 지지하고 있다. 전체 조사에는 안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나타나 불출마 의견이 우세했지만 지지변경/유보층의 경우 출마 54.5%, 불출마 26.8%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안풍이 박 후보 지지 이탈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그림4] 안 출마에 대한 태도 비교: 전체 대 박 지지이탈층



EAI 여론분석센터 출판물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는 2012년 8월부터 주요 테마별 여론분석결과를 2-4페이지 분량으로 압축,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메모>시리즈를 발간한다. 주제별 심층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리뷰>(5-10페이지), 특정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EAI 여론브리핑>(10페이지 이상)와 함께 3종의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된다. 또한 주요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은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를 발간한다.

2012 EAI 오피니언메모(Opinion MEMO) 시리즈

- 제1호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복잡성” 정원철 (2012. 8. 24)
- 제2호 “정당 지지의 하락과 무당파 증가: 야당 지지이탈과 안철수 기대감” 강원택 (2012. 9. 4)
- 제3호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임성학 (2012. 9. 4)
- 제4호 “민주통합당의 딜레마: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 지지자와 인물위주 선거” 박원호 (2012. 9. 4)
- 제5호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선 안철수” 김준석 (2012. 9. 4)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09호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정한울 (2012. 2. 6)
- 110호 “2012 총선 · 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근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31)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8월 20 - 23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50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2.6\%$
패널유지율	72.5% (1차 조사 2,000명 기준)